▪ 교회소식 ▪

1. **추수감사절** :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습니다.
2. **음악회** : 오늘 오후 1:30 2층 예배실에서 추수감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3. **사진전** : 지난 가을 나들이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교회 계단 벽에 두 주간 전시합니다.
4. **환경세미나** : 다음 주일 오후 1:30 교육관에서 환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목은 <환경 토크쇼 : 청파 환경 이야기>입니다.
5. **신앙실천** : 하루에 적어도 세 번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눅 11:37-44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조항범	이유리

	1부 영접위원	최재욱	헌금위원	이수정
11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김경혜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안정숙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이미영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다음주식당봉사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임영선 서이순 원은이 김광일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순용

2017-45 11월 5일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추수감사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농부가 땅 위에 씨앗을 뿌리듯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처음 말씀이 찾아올 때는 기뻤지만 이내 분주한 일상을 살며 그 씨앗의 존재마저 잊고 살아온 저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더욱 정성껏 품어 싹을 틔우고 가꾸어, 주님의 제단 앞에 열매로 바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도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를 즐겼던 저희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불평의 자리를 떠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교 독 문 ····· 106. 감사절(2)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589.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사 51:1-5 ····· I. 인도자
II. 이용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축복하노라 ····· 마중물찬양대
II. 영광의 주님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경혜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병대 김수진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규 이종옥 김정기 김정민
이혜령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종성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전혜리 김진옥
김진우 임미진 김철수 유영남 김형근 김현동 오유경 김현주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노수 남인자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박옥순 박해숙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성래 서이순 서정순 송인선
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양경해 오미숙 우순덕 유금주 유중희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랑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용석 이용현 최연실
이왕준 송상경 이유선 이은주 이재우 배이화 이재은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지하
이진영 한양미 임당재 임성택 홍순위 임주빈 최현옥 임형욱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장혜정 전현선 정성식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최미경 최원남 김희천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형균 강경화
최형민 한기택 한인철 조윤숙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권대성 김경혜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반야 김인석 이선화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김형동 유민희 김혜린 문병욱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박혜경 방경선
신정훈 신진식 변혜정 유민희 김형동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이은혜 이재문 이재은
이한림 김명희 임설희 임종수 장영숙 정경례 정영례 정현숙 최형주 한상수 남해린
홍순구 안홍숙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박기영 배삼순 오슬기 이왕준 송상경

녹색꿈헌금 김지은 박숙미 신진식 변혜정 정구봉 정영례 무명2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추수감사절 음악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추 수 감 사 찬 양 제

중창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하늘빛여성중창단
합주	사운드오브뮤직 메들리 감사해	청파청소년앙상블
합창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보리울의 여름	참빛찬양대 (지휘 안홍숙/반주 김 린)
피아노독주	A. Scriabin-piano sonata no.2 1악장	김가현
합창	주 이름 찬양하라 은혜 아니면	마중물찬양대 (지휘 한선희/반주 김수진)
오르간독주	J.S.Bach - Arioso(BWV1056) Martin Luther-Ein'feste Burg ist unser Gott	이상미
합창	어야디야 감사하세 주 보혈로	청파 찬양대 (지휘 강석남/반주 김가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우리 주님 주신 노래 기쁨으로 찬양하면
한숨이 절로 가시고 참 믿음의 싹이 튼다
에헤이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주님 주신 노래 기쁨으로 찬양하면
한숨이 절로 가시고 참 소망의 싹이 튼다
에헤이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세상에 오시었네 영광 영광의 주 참 빛을 비추었네(x2)
믿음 소망 사랑의 주 이 세상에 오시었네(x2)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x2)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일세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 찬양하면 마음에 평화오고 참 사랑의 열매맺네
에헤이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영광의 주 우리 모두 찬양하세

말 씀 …… **발걸음을 늦추고**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욕망에 이끌려 질주하듯 살지 말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십시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일상의 순례길을 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자신의 내면과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보석천지

… 우리 집 아이들(어떤 날은 아랫마을에서 놀러오는 유민이까지)을 보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뭐 하고 놀까?"로 기획되는 이 학교는 놀 거리를 잘도 찾아낸다. 어떤 날은 종이를 오리고 접고 붙여서 문자, 사진, 노래, 게임까지 담긴 핸드폰을 만들고, 어떤 날은 한자 싸우기 놀이를 한다면서 두꺼운 한자 사전을 꺼내 들고 그 안에서 멋지고 강력한 글자를 끄집어내는 재미에 빠져든다. 또 어떤 날은 강아지 산책시키기 놀이를 하며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 아빠 심정을 느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도 그리기에 열심이다.

어제는 유민이가 가져온 보석(플라스틱 팔찌, 길에서 주운 귀걸이를 이용해 만든 반지 같은 것들)을 한가운데 두고 서로 보석 자랑을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의기투합을 했다.

"야, 우리 보석 찾으러 갈래?"

"그래, 보석 탐험대 놀이 하자!"

"형아, 나도 갈래."

"좋아, 우리는 보석 탐험대다!!!"

세 아이는 보석을 넣을 가방, 망치, 돋보기 같은 것을 챙겨 들고 곧장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때때로 들려오는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혹시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당탕탕 떠들썩한 입장식이 거행된다.

"이모, 우리 보석 찾았어요."

"엄마, 정말 행운이야. 보석을 많이 찾아냈어."

"엄마, 이것 좀 봐. 나도 찾았어."

나는 깜짝 놀라는 체하며 아이들 손에 들린 돌 조각들을 들여다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습기 짝이 없다. 내 눈에는 그저 어디서나 흔히 보는 돌일 뿐, 호들갑을 떨 만큼 보석다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아이들은 자기들이 찾아낸 보석 이름을 알려 달라고 성화이니 얼마나 난처한 노릇인지… 결국 아이들은 나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고 <광물과 자원>이라는 책 한 권을 찾아내더니 자기들이 찾은 보석이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터키석, 금, 루비 등등이라며 이름을 붙이고 보석 그림 그리기, 보석으로 반지 만들기 활동까지 나아갔다. 거기서 끝이냐고? 아니다. "보석 반지 사세요. 하나에 천 원~!" 하고 외치며 마을을 누비다가 끝끝내 마음 약한 할머니 한 분에게 반지 하나를 팔고 돌아오기에 이르렀다.

'고 녀석들 참 재밌게도 사는구나' 생각하며 마당을 정리하는데 내 눈에는 마당에서 해바라기 하고 있는 온갖 곡식과 채소들이 보석이다. 루비처럼 매혹적인 붉은빛 쥐이빨옥수수, 맨질맨질 반짝거리며 빛나는 기장, 금빛으로 탐스러운 조 이삭, '호박'이란 이름의 보석에 뒤질세냐 푸짐하게 아리따운 늙은 호박, 둥그런 얼굴 가득 콕콕 박힌 해바라기 씨앗, 노랗게 잘 익은 여주에서 나온 시뻘건 씨앗까지... 가을이라 더욱 풍성한 마당 전 시장에서는 각자 제 빛깔, 제 자태로 아름다운 보석들이 널리고 널렸다.

참 신기하게도 예쁘다 아름답다고만 끝나는 보석이 아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 나와 한 몸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 존재까지도 한없이 고귀해지는 듯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가 먹는 것이 온통 아름다움이라니! 나도 아름답게 살아야겠구나!!!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만나면 '나도 아름답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순간, 아이들이 주워다 놓은 보석을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나 보석 타령을 하는 것도 자기 안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싶고 그 아름다움과 이어지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게 아닌가 싶었던 거다. 그래서 다시 보니, 역시 새롭다. 대충 곁눈질로 보고는 흔하디흔한 돌이라고 깔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빛깔도 다채롭고 반짝이며 빛난다. 그러니 함부로 볼 게 아니었다. 곡식과 채소, 주변에 널린 돌… 알고 보면 온통 보석 천지! 알고 보니 아메리카 인디언 나바호족의 노래가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앞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 뒤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아래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 둘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찾아나서는 아이들의 곱디고운 눈길이 끝내는 나바호족의 노래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날마다 햇곡식과 열매가 한두 가지씩 추가되어 점점 더 화려해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이 노래를 불러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꼭꼭 씹어 먹으며 깊은 단맛을 음미할 수도 있게 되리라.

- 정청라,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2017.10.27 기사 중에서